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 벤치마킹 이어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생 강진 방문

전국 최고 수준 육아정책으로 함께출산을 전국 2위 달성

지난 4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생 20여 명이 강진군보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을 제고 우수사례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양육 친화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강진군은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취약계층 산모 이용료 감면, 강진군 산후조리비(154만 원) 지원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생에게 설명했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과 임신 계획 단계부터 출산 후 지원까지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통해 함께출산율이 2년 연

속 전국 2위를 달성한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강진군은 임신 계획 단계에는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임신부에게는 ▲엽산제·철분제 지원 ▲조음과·기형아 검진비 지원 ▲안전벨트 대여 ▲자동차 표지 발급 ▲출산용품 등을 지원한다.

출산가정에는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에게 육아수당 월60만 원(최대 5,04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산후조리비 지원 154만 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교육생들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과 청년들의 취업, 주거, 복지, 문화 등을 지원하는 청년지원센터도 방문해 강진군의 인구 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탐구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담양쌀, 2년 연속 프랑스 수출... 올해 200톤 목표

수출액 46억 원 기대, 담양군, 행정·물류 지원 강화

담양군의 대표 농산물 '담양쌀'이 2년 연속 프랑스 수출길에 올랐다.

담양군과 담양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인 지난 4일 봉산면 담양통합RPC에서 '2025년 담양쌀 프랑스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철원 담양군수, 장명영 담양군의회의장, 김법진 농협중앙회 총회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프랑스 파리로 '풍요로운 담양쌀' 18톤이 선적됐다.

담양쌀은 2023년부터 프랑스를 포함해 체코, 미국, 베트남 등지로 수출되며 해외 시장 개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 단독으로 200톤 수출을 목표로 하며, 수출액은 약 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담양군은 물류비, 포장재 등 약 5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담양쌀의 안정적인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담양군은 올해 쌀 수출을 위해 물류비, 포장재 등 약 5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 농산물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출은 NH농협무역을 맡았으며, 현지 수입은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에이스푸드'가 담당한다.

에이스푸드는 프랑스 내 40여 개 아시아인 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여 곳의 한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유통 전문 기업이다. 담양쌀의 품질에 높은 만족을 보이며 올해도 수입 계약을 이어가게 됐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쌀의 품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농가 소득 향상과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설립된 담양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인 관내 7개 농협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담양통합RPC를 중심으로 친환경 및 일반 쌀의 도정·유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쌀 매출은 약 340억 원으로, 학교급식과 가공업체, GS리테일·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에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6월 13일까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패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사업은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차선 이탈 △차량 전방 추

화순군,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돌 △보행자 근접 경보시스템 △페달 블랙박스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사업량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총 25대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연령도 기존 70세

에서 65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으로 낮췄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6월 13일

까지 면허증·자동차등록증·자동차 보험서류 등을 지참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 25명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곡성군, 담양군과 상생발전 고향사랑 상호기부 동참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2일 곡성군청 행정과와 담양군청 행정과 간 서로의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상호 기부를 추진하였다고 6일 전했다.

행사에는 담양군청 행정과와 곡성군청 행정과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서로의 지역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역 간 상호 기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곡성군은 지난 5월 2일 오픈한 곡성에서 매일 만나는 소아과의 지속적인 진료 지원을 위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를 지정기부 사업으로 모금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농협 창구 또는 고향사랑e음, 위기브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장흥군, 세대가 소통하는 '3대 가족정원 만들기' 개최

장흥군은 5일 천관문화관 일원에서 'The 푸른 전남만들기' 실현과 세대간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3대 가족정원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숲속의전남이 주관하고 전라남도도와 장흥군이 후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3대 가족과 (사)숲속의 전남 회원과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은 가족 사랑과 노벨문화도시 장흥 발전의 의미를 담아 수국정원을 조성하고 가족 이튿표도 달았다.

참석자들은 수국의 꽃 하나 하나는 작지만 여러개가 모여 탐스러운 꽃다발을 이루듯이 조부모, 부모, 손자·손녀는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수국 1,680여 그루를 정성껏 심었다.

장흥군 제공



함평군, 세계 금연의 날 맞아 '노담노담 쓰담쓰담 캠페인'

전남 함평군이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전개하며 금연문화 확산에 나섰다.

함평군은 함평교육지원청, 함평중학교와 연계해 지난달 29일 '노담노담(No-Smoking) 쓰담쓰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약 350명이 참여해 청소년 흡연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목표로 금연 포스터, 리플렛, 피켓, 어깨띠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흡연의 위해성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금연 퀴즈 이벤트를 실시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1544-9030)도 안내하며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홍보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